

즉석카메라, 폴라로이드의 발명은 '아버지가 찍고 있는 사진을 왜 지금 볼 수 없냐'고 보채는 5살 난 어린이의 순진함과 기다림에서 비롯.....

※자료제공 : (주)선경, 폴라로이드사업부

일반인에게는 즉석 사진촬영과 현상 인화용카메라 정도로만 인식되어온 폴라로이드의 용도가 과학기술분야, 각종 산업

분야 및 의료분야 등 폭 넓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3여년전, 미국의 한 화학자가 즉석사진 기술을 개발

하여 세계 카메라사의 새장을 연 폴라로이드의 역사 속의 숨은 이야기와 관련, 제반사항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폴라로이드의 어원은 편광판(POLARIZER)과 셀룰로이드(CELLULOID)의 합성어이다.

한편, 폴라로이드사 자체의 역사는 미국의 화학자인 에드윈 랜드박사가 인조 편광물질을 개발한 데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폴라로이드사는 랜드박사의 편광물질 개발을 계기로 1937년에 창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립 초기, 폴라로이드사는 주로 편광판과 편광 선글래스의 생산을 전문으로 했다. 이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므로 편광물질은 주로 군수품으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다른 정교한 여러 광학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폴라로이드사는 여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민수품 생산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즉석카메라를 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폴라로이드사의 즉석카메라 발명은 어느 5살 난 어린이의 아버지가 찍고 있던 사진에 대해 '이것을 왜 지금 볼 수 없느냐?'고 보채는 5세어린이의 순진함과 기다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43년 '왜 사진을 지금 볼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그의 아버지에게 던진 어린이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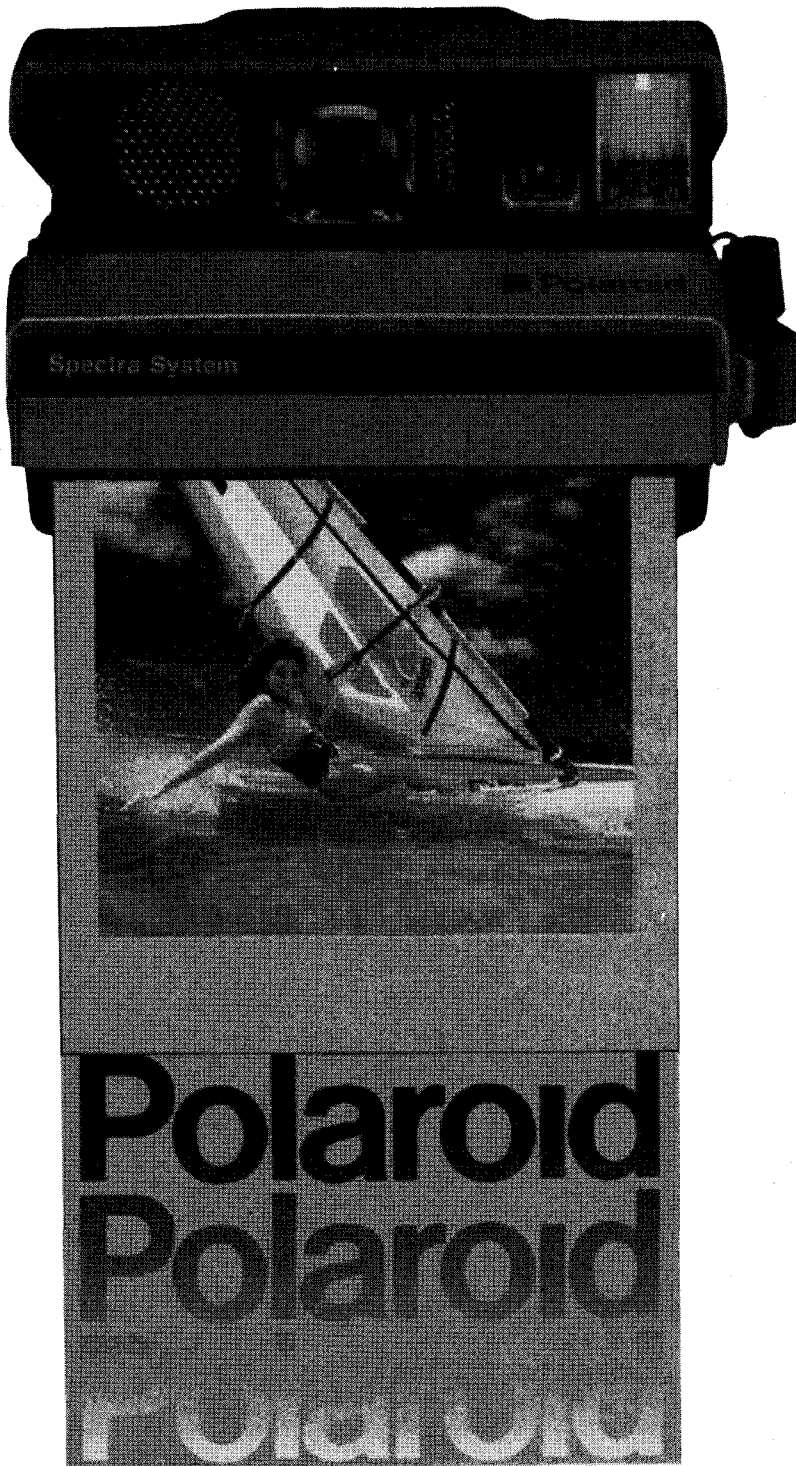
름 아닌 폴라로이드사의 창립자인 에드윈 랜드 박사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발명된 최초의 즉석카메라, 폴라로이드 랜드 95형은 확산전사법을 이용한 것이었고, 이는 판매 8년만에 미국 내에서 1백만대나 보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석카메라 개발 이후, 폴라로이드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상대로 새로운 필름과 카메라를 개발, 공급하기 시작했다. 1959년에는 독일과 캐나다에 해외 판매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60년에는 일본 폴라로이드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폴라로이드 年表

- 1933 - 폴라로이드 코포레이션의 전신. 랜드, 호일라이트 연구소를 설립
- 1937 - 폴라로이드 코포레이션 창립.
- 1939 - 뉴욕 만국박람회에 폴라로이드 입체영화 출품.
- 1947 - 랜드박사, 미국광학협회에 즉석사진을 발표.
- 1948 - 최초의 폴라로이드 랜드카메라모델 95와 폴라로이드 랜드필름 타입 40을 발매 (필름의 감도는 ISO 400, 60초에 암갈색조의 프린트를 완성)
- 1950 - 폴라로이드 랜드필름 타입 41을 발매 (최초의 흑백필름 완성)
- 1951 - X선 사진용, 폴라로이드 필름 타입1001을 발매 (60초에 10×12인치 X선 사진을 완성)
- 1955 - 팬 타입의 랜드필름 (폴라팬)타입 43을 발매
- 1957 - 폴라로이드 슬라이드 시스템을 발매 (2분만에 영사용 흑백슬라이드를 완성)
- 1958 - 4×5인치 랜드필름 홀더 모델 500과 4×5인치 인스턴트 시트필름을 발매
- 1959 - 초고감도 타입 47랜드 필름을 발매
- 1960 - 모델 900카메라를 발매 (최초의 자동노출제어 EE카메라) 일본 폴라로이드사 설립.
- 1961 - 타입 55P/N필름 4×5인치를 발매
- 1962 - 다용도 공업용 카메라 폴라로이드 MP-3를 발매
- 1963 - 폴라칼라 타입 48를 발매 (최초의 즉석 칼라필름) 모델100, 랜드카메라 발매
- 1964 - 적외선 필름 타입 48을 발매
- 1965 - 스윙거 카메라 모델20을 발매 (최초의 저가격 보급형 카메라)
- 1966 - ID-2랜드 ID카메라 발매 (2분만에 칼라 신분증명용사진 완성)
- 1969 - 칼라 팩 II렌트카메라를 발매
- 1971 - 폴라로이드 ID-3시스템, 크로스업카메라 CU-5, CRT기록용의 CR-9카메라를 발매
- 1972 - 폴라로이드 SX-70시스템을 발매 개시
- 1976 - “프론토” (폴라로이드 2000)카메라를 발매 (SX-70시스템의 보급형 카메라)
- 1977 - 폴라로이드 1000을 발매 (보급형 카메라)
- 1979 - 타임제로 슈퍼칼라 SX-70 필름발매
- 1980 - 폴라칼라 ER필름, 타입 809, 59를 발매
- 1981 - 600선, 시스템을 발매. 타입 891, 612를 발매
- 1982 - 폴라로이드 35MM 슬라이드, 시스템 완성.
- 1983 - SLR 680 카메라 발매
- 1986 - 폴라로이드 스펙트라 카메라 개발
- 1988 - 폴라로이드 임펄스 카메라 개발



그후 1963년에는 즉석 칼라 필름과 즉석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오토메틱 100형을 그리고 1972년에는 즉석카메라 SX-70형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계속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폴라로이드사는 스펙트라, 임펄스, 600등 최신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매년 약 20여종의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20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폴라로이드사의 제품이 국내에 처음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월남전 참가 병사들이 귀환할 때, 미군 PX로부터 구입해 들여와 소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폴라로이드사의 제품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그 당시는 국내 경제 여건상 관광지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일부 직업사진가에게만 보급되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그 수요는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선경이 지난 '87년 폴라로이드 사업부를 신설, 수입판매를 하고 있다.